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누가복음-사도행전 신학, 세션 2, Bock – 누가복음의 출처, 목적, 독자, 목적지 및 날짜.

누가복음-사도행전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세션입니다. Darrell Bock의 누가복음 소스, 목적, 독자, 목적지 및 날짜입니다.

우리는 Darrell Bock의 첫 번째 책에 있는 소개 자료를 통해 신학 분야에서 누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베이커가 펴낸 신약 주석 시리즈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출처. 누가의 저서의 출처는 공관 문제로 알려진 복잡한 영역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관 문서의 독립성을 주장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사이의 표현과 순서의 일치 정도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 반대됩니다. 게다가 누가 자신 자신의 서문인 누가복음 1:1~4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선배들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너무 단순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가설로 알려진 오래된 해결책은 그 순서가 마태, 마가, 누가라고 주장합니다.

이 가설의 주요 문제점은 누가복음의 사용을 호소하지 않고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요약 복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바흐(Griesbach) 또는 두 복음서 가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올바른 순서라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의 매력은 가정된 자료가 없고 마태복음이 가장 초기의 복음서임을 시사하는 초기 교회 전통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주요 문제는 누가가 마태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요약 복음인 마가가 어떻게 다른 복음서와 겹치는 외설문에서 더 생생한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산상 수훈이나 누가복음의 평지 수훈과 같은 마가의 유아기 이야기나 확장된 가르침이 없다는 점은 마가의 마지막 설교에 반대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마가가 종말론적 비유나 담화를 사용한 것은 마가가 예수의 담론을 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1924년 Streeter가 처음 공식화하고 오늘날 Tuckett(1983) 및 Fitzmyer (1981)가 옹호하는 관점인 4원천 이론의 어떤 형태를 고수합니다.

Luke와 관련된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한 Fitzmyer의 변호는 이용 가능한 가장 자세한 내용입니다. 이 견해는 마가의 우선권과 독일 Quella 또는 출처에서 Q로 알려진 속담 출처의 사용을 주장합니다. 마가가 첫 번째이고 마태와 누가가 사용한 말의 출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을 뜻하는 M이라는 특별한 자료가 있고, 누가복음에는 L이라고 불리는 유아기 자료와 같은 자신만의 특별한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가지 자료는 마가복음, Q입니다. L, Luke 특별 소스, M, Matthew 특별 소스. 그리고 누가는 마가복음, Q, L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의 가장 어려운 측면은 Q에 대한 증거의 특성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장르에서. 다시 한번, 바흐는 학계에 동조하고, 견해를 공정하게 제시하고, 그가 선호하는 견해를 포함하여 모든 견해의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에서는 좋은 장학금을 받았어요. 마가복음을 우선시하는 두 복음 가설의 최근 변형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순서를 주장하는 골더(Golder)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누가는 마가복음, 특별한 자료, L,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반영되어 있는 전통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종종 마태복음의 언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Q 자료는 성격이 매우 다양하여 어떤 사람들은 Q의 두 가지 형태, 즉 마태복음 버전과 누가복음 버전을 말합니다. I. 하워드 마샬(Howard Marshall)은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는 Q가 고정된 서면 전통이 아니라 널리 유포되는 전통의 풀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와 누가가 공유하는 가르침과 비유의 양을 고려할 때, 마태는

Q를 사용하고 누가는 L을 사용하여 L과 Q가 겹칠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Q를 선의의 문서 또는 문서 세트로 말합니다., Bach는 Q를 Luke와 Matthew가 끌어낸 전통의 유동적 풀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Bock은 콤플렉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사례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구별에 대해 미세한 구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vans, CF Evans, Craig Evans, 1990에는 L 본문과 Luke 본문이 47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독특한 자료는 누가복음 485절, 즉 누가복음 전체의 약 42%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누가복음의 42%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많은 내용은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독특한 초상화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선한 말씀과 비유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에게는 네 가지 기적이 독특합니다.

누가복음 7:11~17. 누가에게는 네 가지 기적이 독특합니다. 누가복음 7:11~17, 손마른 사람.

누가복음 13:10부터 17절까지를 ESV에서는 장애의 영이 들린 여자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안식일에 어떤 사람을 고치심. 누가복음 17:11~19.

예수님께서 나병환자 10명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세가지는 안식일 논쟁이나 예수님에 대한 비유대인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몇 비유는 누가복음의 독특한 특징임이 분명합니다.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여 섬김을 강조하고,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29~37, 겸손, 바리새인과 세리, 누가복음 18:9~14, 기도의 근면함과 미래 또는 종말론적 소망, 잔소리하는 친구 누가복음 11:5~8, 잔소리하는 과부, 누가복음 18:1~8, 잃어버린 자의 소중함과 그들이 회복되는 기쁨, 잃어버린 동전과 잃어버린 아들, 누가복음 15:8~10, 11~32, 그리고 주님의 보살핌 자원의 사용과 가난한 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친절, 누가복음 12:13~21, 교활한 청지기, 16:1~8, 나사로의 부자, 16:19~31. 누가복음의 윤리적 요점이 드러납니다. 이 자료에.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는 네 가지 추가 비유는 마태복음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해야 하고, 식탁에 앉는 것을 기뻐해야 하며, 잃어버린 양이 올 때 기뻐해야 하며, 주인이 공급하는 것은 그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충성해야 합니다. 복음에 담긴 광범위한 주제와 누가복음의 목회적 관심은 이 독특하거나 독특하게 강조된 자료에서 드러납니다. 복음서는 사도행전과 연결됩니다.

출처의 사용에 대해 생각할 때 누가는 그의 속편인 사도행전을 예상하기 위해 그의 복음을 구성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도행전과의 이러한 연관성은 서문(눅 1:1~4, 행 1:1)의 반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프롤로그는 다른 고대 작품을 연상시키는 스타일로 누가복음을 되돌아봅니다. 사도행전 1:1을 읽으면서 요세푸스를 아피온, 1, 1, 1항 과 비교하십시오. 데오빌로야, 내가 첫 번째 책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일부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 후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고난 받으신 뒤에도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의 연관성은 두 권을 지배하는 비유 주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처럼 병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고, 사도행전 7장의 순교자 스테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천 이야기는 또한 두 권의 책을 밀접하게 연결합니다.

누가복음 24:49~53, 행1:1~11. 앞서 말했듯이 승천은 여러 곳에서 언급되지만 실제 사건은 이 두 곳에만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24:49~51, 사도행전 1:1~11.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의 광범위한 유사점을 지적하려는 노력은 종종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누가가

예수 시대와 추종자 시대 사이의 유사점을 보여 주려고 의도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권의 이야기와 신학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출현을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누가가 자료를 사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또 다른 요점이 드러납니다.

그는 재료를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누가가 얼마나 훌륭한 역사가였는지에 대한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신학적인 이유로 자신의 자료를 매우 자유롭게 다루는 것을 봅니다.

Golder, Hanson, Martin Dibelius 또는 사회학적 이유로 Esler. 면밀히 조사되는 항목 중에는 누가가 예수의 탄생과 퀴리니우스의 인구 조사를 연관시킨 것, 그가 디도 치하에서 반란을 일으킨 시기, 특정 비유와 말씀의 신빙성, 기적의 실제성, 예수의 시련에 대한 묘사, 세부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의 부활 이야기, 신실한 연설의 표현, 초기 교회의 화합에 대한 묘사, 고넬료와의 만남의 독특함, 예루살렘 회의의 현실, 바울에 대한 묘사 등이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바빴습니다.

그러한 세부 사항에 대한 조사는 사례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의 복잡성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적 공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세계관 문제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그의 자료를 사용한 것을 검토해 보면 그의 전반적인 신뢰성이 드러납니다.

환경, 관습, 지역에 대한 그의 설명을 조사해 보면 동일한 민감성이 드러납니다. Martin Hengel은 1980년에, Colin Hemer는 다시 1989년에 썼습니다. Luke는 일류 고대 역사가이며 대부분의 훌륭한 고대 역사가들은 그들의 임무를 잘 이해했습니다.

여기에는 투키디데스와 폴리비우스가 포함됩니다. 누가는 오로지 신학자이거나 역사가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많은 사람들은 역사에 덜 중요한 위치를 부여하고 누가가 자신의 자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보여주는 출처의

증거를 과소평가합니다. 그분은 부주의하지도 않으시고, 일부 고대 역사가들처럼 사건을 조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요점은 누가가 강조할 자료를 재배열할 수 없고, 사건을 자신의 언어로 요약할 수 없고, 전통에서 끌어낸 대로 자신의 강조점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의 누가복음 출처 목록과 그 배열을 연구하면 바로 이러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의 연설은 보고뿐 아니라 요약하고 선포한다.

확실히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는 더 길었고 누가는 그 설교를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묘사하는 사건을 예민하게 관찰합니다. 그는 역사와 신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사건과 가르침의 시간적 순서뿐만 아니라 그 주제와 신학적 관계에 대해서도 글을 씁니다. 그는 신학자이자 목자로서 글을 쓰지만, 그의 방향은 그보다 앞선 역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누가는 역사적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그의 목적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역사가요, 신학자요, 주 예수를 사랑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행하는 일과 행하는 일을 선택하고 강조하는 신학자이다. 목회적이든 신학적이든 역사적이든 누가복음의 노력에서 어떤 요소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그의 설명의 깊이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바흐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말합니다.

그래서 Zondervan이 일련의 신약 성서 신학을 시작했을 때, 현재 Zondervan의 출판자인 Katja Kovrit는 ETS 회의에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신약, 신약의 각 말뭉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Doug Moo에게 바울의 신학을 맡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터 데이비드(Peter Davids)에게 일반서신의 신학을 맡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신학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Darrell Bach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신학에 관한 그의 책은 매우 훌륭합니다. 목적, 독자, 목적지.

테오필루스가 이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될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복음과 그 후속편에 대한 수많은 의도가 제안되었습니다. 나는 그 중 11개를 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을 만한 제안이 넘쳐나는 것은 Lukan 기업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제안 중에서 구원과 그분의 새로운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제안은 누가복음의 포괄적인 의제의 핵심 측면을 반영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나는 누가 제안한 목적 중 몇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확증과 구원의 메시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신정론. 이방인을 위한 온전한 친교의 사회학적 정당성과 로마에 불충실하지 않은 새로운 공동체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제안이 유대교의 자연스러운 확장임을 보여줌으로써 유대교와 화해하려는 노력. 복은 이 네 가지를 누가복음에 제시된 의도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누가복음의 독특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구조와 신학에 대한 조사가 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테오필루스가 단지 기독교인이 되는 데 관심이 있거나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받아들이기 위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 로마 관리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바울과 그의 단순한 전도 메시지도 방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한 법적,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복음은 너무 적고, 단순한 전도 이상의 문제를 다루는 권고는 너무 많습니다.

그는 누가복음의 다른 일곱 가지 목적을 거부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과 4에서는 데오빌로가 어떤 교훈을 받았음을 암시합니다. 누가가 신실함, 유대인-이방인 관계, 예수의 재림에 대한 희망에 매달리는 것에 대해 묘사하는 세부 사항은 자신이 새로운 공동체와 연합하는 데 대해 의심을 겪고 있는 이방인을 암시합니다.

식탁 교제, 이방인 포용에 관한 문제, 초기 교회에서 거절당했던 사례 등도 이러한 상황을 암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윤리적 권고의 양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암시합니다. 데오빌로는 자신을 교회에 소속시켰으나 사실 자신이 실제로 인종적으로 혼합되고 심한 박해를 받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의심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눅 1:3).

복음서에서 누가는 데오빌로를 예수의 생애로 데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합법화하셨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희망을 선포하셨는지 검토합니다. 누가는 또한 많은 민족이 약속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변호하고 싶어합니다. 복음의 제안에는 데오필루스가 공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극심한 거부 속에서도 신실하고 헌신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유지하라고 그에게 요구합니다.

매우 가능한 것은 데오빌로가 그리스도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두 권의 구약성서의 광범위한 사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회당의 유일신교와 윤리에 매력을 느끼는 이방인들인데, 그 점에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곳은 바울이 로마 세계를 전도할 때 적합한 선교지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긴장감을 느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원래의 유대인 운동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누가가 제공하는 확신의 말씀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 부족이나 복음에 대한 이방인의 개방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유대인이나 유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시하셨고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에 참여하도록 여러 차례 초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충돌한 것은 새로운 운동이 의식적으로 국가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쫓겨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부는 사도행전의 증거이지만, 그 씨앗은 누가복음 9장부터 13장, 22장, 23장에 자세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뿌려졌습니다. 누가의 경우, 새로운

공동체는 축복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16~30. 누가복음 5:30~32. 누가복음 19:10,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24:44~47. 예수께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설교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는 축복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34-43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고넬료 집안의 개종. 행 15:1~21, 예루살렘 회의와 그 결과- 22:6~11. 행 26:15~20.

날짜. 누가복음의 연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는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건의 연도 이내일 것이며, 그 사건은 아마도 62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일부 비평 학자들은 연대를 2세기 초반에서 중반으로 제시하지만 사도행전의 어조는 이 시기의 다른 문서의 어조와 실제로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후기 저작물이 사도행전만큼 바울의 편지를 무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날짜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의 어느 시점, 즉 일반적으로 서기 80년에서 90년 사이입니다.

제시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는 60년대에 기록된 마가복음 이후에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웅적인 인물로서의 폴의 모습이 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에베소 같은 교회의 초상은 90년대 중반 박해가 생략되기까지의 기간이 필요하다. 넷째, 포위 공격에 대한 설명과 도시에 초점을 맞춘 누가의 목시적 담론은 함락을 전제하고 70년 이후의 기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신학의 일부 측면은 늦었고 심지어 초기 가톨릭적이었습니다.

이 주장 중 세 가지는 핵심이 아닙니다. 바울이 영웅으로 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가 쓴 편지는 그가 추종자들과 논쟁을 불러일으킨 교회의 중심 인물임을 보증합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야고보가 꽤 빨리 존경을 받았음을 보여주며,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로마의 박해를 받지 않았던 교회들의 초상화는 81~96년에 통치했던 생략 이전의 어느 때나, 네로의 박해를 제외한 어느 때라도 적합할 수 있다(64). 누가-행전에서 초기 카톨릭에 대한 논쟁은 계속된다. 그러나 누가가 그러한 후기 신학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결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유학자들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목회서신들, 즉 교회 직분과 세부 교회론에 소위 초기 천주교가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재림에 대한 희망이 종말론적 이유를 갖는다고도 주장한다. 어두워지면 더 먼 미래로 미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목회자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주제와 아이디어, 따라서 다른 어휘를 반영하며 실제로 바울이 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천주교의 경우, 직분이 발전했고 교회가 더 조직화되었다는 것, 2세기에 주교 등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도행전이나 목회서가 후기 문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위 초기 가톨릭교를 포함시키는 것은 과대평가되었습니다.

데이트에 관한 두 가지 주장은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Bach는 말합니다. 누가가 마가를 따른다는 제안은 마가가 아닌 마태가 최초의 복음서라고 생각하더라도 마가가 기록한 60년대 이후의 복음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날짜는 60년대 초반에 일어난 사도행전의 마지막 사건과 가깝습니다.

특히 누가가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과 교제했다면 마가는 얼마나 빨리 유포되어 누가가 접근할 수 있었겠는가? 질문입니다. 마가가 위상을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영웅 인물인 바울이 발전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바울이 거의 즉각적으로 주요 인물이 되었다는 주장과 비슷합니다. 이제 마가가 베드로에게 뿌리를 두고 있었다면 그의 작품에 대한 존경심도 즉각적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누가는 유통되고 있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누가 1:1. 그가 그러한 문서를 여러 개 언급했기 때문에 준정규적 지위는 전제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성경적 정경성을 지향하지 않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종말론적 담론인 누가복음 19:41-44, 누가복음 21:20-24이 70년 이후의 날짜를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마태와 마가의 기록처럼 성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도시에 대한 포위 공격과 초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Esler는 정확하게(19:87) 이 날짜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방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담론의 세부 사항을 단순히 전쟁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에만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특징은 전쟁의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Esler는 CH Dodd의 주장(19:47)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 언어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대의 군사 작전과 병행하여 솔로몬의 성전 약탈에 대한 후속 설명과 일치하기 때문에 70세 이전의 예수에게는 담론의 모든 전쟁 언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을 하면서 Esler는 구약성서와의 연관성에 대한 핵심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심판은 언약의 불성실로 인해 시행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과 포위 및 완전한 패배의 병행은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Esler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의 멸망이 기정사실이라고 호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전 날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타락이 암시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추론이다. 그러나 타락에 대한 암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가가 종종 자신의 자료와 관점을 업데이트한다고 자주 주장합니다.

주장된 대로, 그가 다른 곳에서 이 일을 했다면, 신성한 달력에 있는 이 주요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여기서는 왜 안 됩니까? 직접적인 언급이 아닌 침묵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약하자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불성실을 심판하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만 할 수 있었던 예언입니다. Luke는 여기서 설명을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지면 그 성읍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80년대와 90년대의 날짜에 대한 주요 주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80년대 데이트가 가능해 보이고 인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아니다. 이는 Colin Hemer, Ellis, I. Howard Marshall이 주장한 60년대 어딘가의 날짜라는 또 다른 가능성을 남깁니다.

이 날짜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그림은 예수 운동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로마가 여전히 기독교가 적합한 곳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62세의 제임스나 60대 후반의 폴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편집상 언급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침묵입니다. 넷째, 내부 유대인-이방인 관계에 대해 표현된 불확실성의 정도는 비슷한 긴장을 다루는 바울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8~10장, 에베소서와 유사한 설정에 적합합니다. 이 마지막 이유가 가장 중요하며 현재까지의 논의에서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인종적으로 혼합된 공동체를 전제로 하며, 이는 이후의 날짜가 아닌 이전 날짜를 암시합니다. 걸림이 될 수 있는 율법, 식탁, 교제, 관행에 대한 세부 사항(행 6:1~6, 10~11장, 15장, 6:1~6, 10~11장, 15장)도 암시합니다. 율법, 식탁, 교제 및 공격적인 관행에 대한 세부 사항은 또한 이방인 선교가 여전히 그렇게 강력하고 상세한 방어가 필요하다는 더 이른 시기를 암시합니다. 더 나아가 60년대, 80년대, 80년대 이후, 기독교 운동의 이방인 성격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 유대인의 극심한 압력 속에서도 신자들은 확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초기에도 잘 들어맞습니다. 더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60년대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끝 부분이 완성 연대가 60년대 초임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가복음 11장, 49장, 51장과 같은 본문이 로마와의 투쟁의 시작을 전제로 하며 연대를 60년대 후반으로 제시한다고 제안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죽음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60년대 후반이 아니라 60년대 초반에서 중반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가 마가를 받아들여 통합하는 데 걸린 시간은 60년대 중반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0년대 초중반의 날짜가 유력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경력의 끝을 미정으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글을 쓸 당시 상황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는 장소. 누가가 기록한 장소를 정하는 곳은 그 일을 정한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에는 가이사랴가 포함됩니다. 누가복음이 60년대에 기록되었다면 그럴 것입니다. 로마, 60~80년대.

안티오크, 어떤 날짜든요. 그리스, 어떤 날짜에도요. 반마르시오파 프롤로그와 군주제 프롤로그는 그리스 아카이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 Bovan은 로마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1년 Fitzmyer가 대답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휴식 후에는 고대 사본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누가복음의 구조와 주장을 다루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버트 A. 피터슨(Robert A. Peterson) 박사와 그의 누가복음 사도행전 신학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세션입니다. Daryl Bach의 누가복음 출처, 목적, 독자 및 목적지, 날짜입니다.